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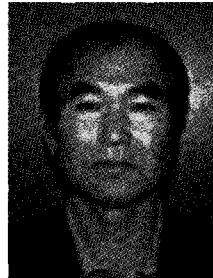
“통일우유보내기운동”에 바란다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통일”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총성이 몇은지 어언 반세기. 그 반 세기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 왔습니까? 우리들은 한 민족, 한 품줄, 한 형제라는 것도 잊고, 서로 제 갈길을 달려가던 사이 우리의 남과 북은 너무나 다른 남이 된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들도 얼마나 힘들고 비참 했습니까? 또한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배고픔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설움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움푹 들어간 눈에, 맹꽁이 배, 그리고 맨 발차림으로 동네를 거닐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방송에 나오는 아프리카 저개발국 어린이들의 모습이 바로 전쟁직후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내 멀지도 않은 위쪽에 그러한 모습의 아이들이 하루하루 끼니때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우유가루(지금의 전지분유)를 드럼통에 끓이면 우리들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 한컵 얻어먹던 생각이 납니다. 또한 밥솥(보리밥)에 우유가루를 찌면 딱딱하고 노란 우유 과자 가 됩니다. 그 우유 과자를 입에 한 냉어



우상옥
서울우유연합지회장

리 넣으면 어찌나 딱딱한지 하루종일 우물우물 녹여 먹던 생각이 됩니다.

논두렁에 나는 쫀드기, 산에 소나무 가지(송기), 철마다 산과 들에 풀과 나무가 남아 있지 않던 시절! 닥치는 대로 먹어도 배탈도 나지 않던 시절! 세상에 모든 고통은 참아도 배고픔은 참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남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북한 어린이들이 전쟁직후 우리들의 모습이라니, 북한의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쌍한 북한 어린이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은 못 먹여도 하루 우유 한 잔이라도 마시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유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고, 특히 우유칼슘은 다른 식품에 비해 약 2~3배 이상 소화 흡수율이 높아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 청소년, 성장기에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우리의 옛날을 생각해서라도 북한 어린이들에게 꼭 우유를 먹이도록 합시다.

남·북의 어린이들이 장래에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기둥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낙농육우협회의 도지회와 연합지회가 모금에 적극 활동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함께 해 봅시다!

우리 서울우유 연합지회도 적은 정성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낙농인들이 솔선수범하고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운동이 되도록 정부차원의 협조와 범국민적인 동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농인 여러분!

너도나도 모두들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에다 이것저것 다 퍼준다고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유는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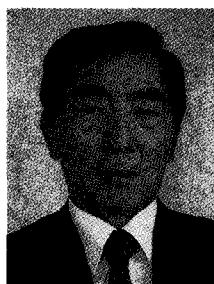
들 합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북한 어린이에게 우유를 보내는 일에 각자 형편 따지며 거절할 수 없으며, 퍼주는 행위라 비난해서도 안되겠습니다.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유는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이야 말로 기아에서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도 돋고 우유 소비 홍보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마음 뿌듯한 운동입니까?

우리 한번 떨떠 뭉쳐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에 동참 합시다.

우리우유는 통일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



강 해 진
부산우유연합지회장

우리협회에서 제시한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을 지켜보는 한 낙농인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낙농을 시작한지 30 여년이 지났지만 3D업종 중에도 가장 어려워 모두가 주저하는 일이었는데 이제야 보람을 느끼

는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다.

나의 작은 지원이 북한의 형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여러 가지 운동들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면서 몇 자 언급하고자 한다.